

미국 금리동결과 향후 전망

미국 금리동결에 따른 금융시장의 반응

□ 미국 연방준비제도(Fed)는 6월 14~15일(현지시간)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수준(0.25~0.50%)으로 동결함

- 연준의 금리동결에는 고용시장 개선속도 둔화와 함께 브렉시트 가능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

□ 금융시장 상황(뉴욕 오후 6시 기준)

- 주가 : 다우 0.20% 하락, S&P500 0.18% 하락, EURO STOXX 1.18% 상승
- 10년물 국채(미국) : 1.614% → 1.572%
- 달러/유로 : 1.1260 → 1.1263
- 엔/달러 : 106.01 → 105.89
- 원화 NDF(1개월) : 1,177.0 → 1,170.2

미국 금리인상 시기 전망

□ 미 연준은 이번 성명서를 통해서도 지난 3월발표와는 달리 금리인상 시기에 대한 판단근거가 될만한 힌트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연준이사 및 지역연준 총재(17명) 금리전망을 보면 9명은 금년중 2회 인상, 6명은 1회 인상을 예상

- 한편 연준은 2017년 및 2018년 기준금리도 종전 3월회의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

* 2017년(1.875%→1.625%), 2018년(3.0%→2.375%)

□ 금융시장에서는 7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으며 빠르면 9월로 예상

* 향후 FOMC 회의 일정 : 7.26~27일, 9.20~21일, 11.1~2일, 12.13~14일

- Bloomberg(6.15일)에서는 연방기금금리선물(Fed funds futures)을 통해 예상한 7월 인상 가능성이 한달전에 비해 29.5%p(35.4%→5.9%) 낮아졌다고 보도
- Financial Time(6.15일)에 따르면 7월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경제 지표가 개선될 경우 9월 및 12월 추가인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도
- Goldman Sachs의 이코노미스트 Jan Hatzius는 6.15일 “4.7%의 실업률, 임금 상승, 금융환경의 완화 등을 감안할 때 미 연준은 더 이상 금리인상의 일시정지(pause)를 지속할 수 없을 것”이라고 언급

□ 그러나 일부에서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및 미국 대선시기를 고려할 때 금년중 금리인상이 어려울 것으로도 보고 있음

- Washington Post(6.14일)는 대선이 종료되고 지난 금리인상(2015.12월)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시점인 12월까지의 금리인상을 단언할 수 없다고 보도